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성경: 베드로후서 1장 1-9절
(Tag:)

1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2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앎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 지어다

3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앎으로 말미암음이라

4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5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6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7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8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9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벧후1:1-9)

사람됨은 성품으로 구별된다.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갈등 없이 그 관계를 유지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인격을 이해하는 기초적 원리가 있다.

1. 성품은 정해져 있지 않고 그래서 다양할 수 있다. 한 사람의 성품은 다양할 수 있으며, 선과 악으로 구별되지만 단순히 두 개의 성

품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의 차이와 거리가 멀며 다양하다는 것이다. 성품은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사람마다 독특하게 발달한다. (다양한 환경요인으로 인해서.)

2. 기본적으로는 유유상종의 경향성이 있다.

여기에 특별한 재능이 있다면 유유상종을 뛰어넘는 관계가 가능해진다. 그래도 역시 그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끼리 또 유유상종을 이루기 마련이다.

그런데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항상 유유상종만은 아니다. 세상이 현대화 되면서 더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문명사회일수록, 도시 사람일수록, 직업을 가진 사람일수록, 다양한 사람들을 상대하는 직업을 가질수록 사람들은 더 영악해지고 사람들을 상대하는 처세술은 늘어간다.

그럴수록 다양한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는 다양한 인격을 갖추게 된다. 그러다가 그 인격들간에 모순을 경험하기도 하고 정신적 증상에 시달리기도 하므로 조심해야 한다. 인격에 대한 이해가 건강할 필요가 있다.

3. 기본적으로 사람의 성품은 관계적이다. 성품이란 관계에 의해서 서로 길들여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관계가 많다는 것은 그 많은 관계의 수 만큼 다양한 인격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뜻도 된다. 물론 이런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다. 한가지 인격으로 다양한 사람을 대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결국은 마지막 원리에 도달하게 되는데, (3번째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성품이란 자기 중심적이 되어서 이 사람은 매번 다른 사람을 만날 때마다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4. 성품에도 가치가 있다. 그 가치는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과 관계할 수 있는지로 가늠된다. 그 부류가 좁은지 넓은지로 측정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너그러운 성품의 소유자라면 그렇지 못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 더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렇다면 사람의 성품이 발달할 수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 하나님과

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사람의 성품은 개발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2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앎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 지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더 좋은 성품을 함양할 수 있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성품에 대해서 교훈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3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앎으로 말미암음이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성령의 능력으로. 즉 성품의 개발에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임을 알 수 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성품이란 경건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고, 경건이란 생명과 직결됨을 명시하고 있다. (운동이나, 건강한 식생활이나, 요가나 취미보다 경건이 훨씬 효과적이다.)

-영광과 덕으로서;영광이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뜻한다. 하나님의 영광은 최고의 가치를 뜻하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다거나, 알게 되었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절대적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영광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절대적인 가치를 흠모하고 따르게 되는데, 자신에게 경험되어지는 가치의 정도에 따라 자신의 성품의 가치도 정해진다.

-하나님의 덕이란 그 규모가 무한대이고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동일한 성품을 함양할 수 있게 된다.

4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지극히 큰 약속;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생과 신분 상승과 변화에 대한 기대 때문에 성품의 질이 높아지고 유지된다.

성품이란 1.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가치관 (보고, 친밀감을 느끼게 되고, 유유상종, 하나님의 자녀 혹은 백성에 대한 동일함을 갖게 됨. 흠모와 본받으려는 충동이 일어남.) + 2. 하나님의 덕(풍성하신 주권,

희생적 사랑, 절대적인 선하심)이 부어짐으로 인해서 = 하나님의 성품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 그 결과로 인해서 지극히 큰 약속이 보장됨을 알게 됨.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함;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면 죄의 성품에 대한 가치를 썩어질 것으로 여기게 됨. (성경에서 정욕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성욕이 아닌, 더럽혀진 성적 욕구를 말함.) 악한 성품이 악한 이유는 마귀가 악한 의도로 더럽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강직함이란, 마귀에게 더럽혀질 경우 무자비한 성품으로 변질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기록해질 경우 불굴의 의지로 작용하여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한다.) 성품의 관계성을 이해해야 함.

-즉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훌륭한 성품을 함양하게 되고, 마귀가 관계를 맺게 되면 무가치한 성품의 소유자가 된다.

5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6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7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믿음이란 시작이다. (성품과 관련해서 해석하면)

-덕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신성한 성품의 풍성함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덕에 지식을 더해야 함;지식이란 성품이 더욱 강력해지는 계기가 된다. 그러면 이는 마치 돋보기처럼 햇빛을 한곳에 모을 수 있게 하여, 어떤 덕이든지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게 하는 성품이므로 대단히 중요한 성품이라 할 수 있다.

-절제;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 뭐든 지나치면 갈망은 식어버리고 동기유발은 일어나지 않으며 가치는 하락한다.

-인내; 조급하면 망치게 된다. 담대할수록 때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하고, 최대한의 승리를 거두게 한다.

-경건; 성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을 말함

-형제우애;경건하면 스스로 거룩해지는 것이 습관화 되어서 경건하지 못한 자들을 무시하고 독선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진정한 경건은 주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사랑을 더하라;이 사랑은 영혼에 대한 사랑, 다른 민족들에 대한 사랑을 말한다.

부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며 결단하자.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성경: 시편 62편 (Tag:)

1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2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크게 흔들리지 아니함. 작게 흔들림.

3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위기속의 인생.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위기는 없다. 그러나 모든 위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위기감은 필요하다. 위기를 극복하는 강인한 정신력이 필요하다. 어떤 위기든지 이겨낼 수 있는 건강한 정신력.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일 경우에는 정면 도전 하지 말라!

4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피하고 거짓을 즐겨 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5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6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7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8 백성들이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9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10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

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11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12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 니이다 (시62:1-12)